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방안 논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24일까지 172개국 대표단장 회의 개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국회의원 김운덕, 이하 조직위원회)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상황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제1차 대표단장 회의'를 22일부터 24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회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172개 회원국 대표단장들이 참석해 세계잼버리 주요 행사내용과 분야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각 회원국에서는 대표단장 회의에서 제공되는 행사정보와 안내 사항을 토대로, 회원국 내 잼버리 참가자를 모집해 조직위원회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된다.

이번 대표단장 회의는 172개 회원국의 시차 등을 고려해 참석이 편리한

시간대를 3개로 구분하고, 참석 대상 국가를 달리해 동일한 형식의 회의를 3회 운영한다.

회의는 먼저,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회의원 김운덕), 집행위원장(전북도지사 송하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주)블랙야크 회장 김태선)가 영상으로 환영의 인사를 한다.

이어, 9월 말 사전에 각 회원국에 제공한 잼버리 주요 행사내용과 안내 사항에 대해 각 회원국으로부터 사전에 접수 받은 질의사항에 대한 일괄 답변을 진행한다. 이후 현장 질의·답변 등 실시간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회원국의 대표단장이 행사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언어(영어, 스페인, 러시아, 불어, 아랍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2023 세계잼버리 개최에 앞서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전 점검을 위해 2022 새만금 프레젠테이션(Pre-World Jamboree, 2022.8.2~8.7.)을 개최할 계획이며, 동기간 중에 제2차 대표단장 회의(2021.8.2~8.5.)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대표단장 회의를 통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내용과 주요 특징 등을 잘 안내해 해외에서 많은 스카우트 대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열대 및 권역시설 조성, 다양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마련,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내·외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세계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내년도 사망사업에 306억원 투자한다

올해 예산 대비 62% 증가

전북도가 내년도 사망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산림재해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나선다.

도는 21일 2022년도 사망사업에 3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업에 국비 214억 원을 확보한 전북도는 지방비 92억 원을 포함해 총 306억 원을 사망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예산 189억 원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예산을 대폭 확보한 전북도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댐과 산림유역 관

리사업 등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 시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로 밀려 내려오는 토석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큰 사방댐은 38개소에서 80개소로 42개소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산림재해 예방 및 수자원 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이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가 늘어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사업량이 대폭 증가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망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타당성평가,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업을 집중 추진하며, 장마철 이전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정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허건 도 환경녹지국장은 "2022년도 사망사업 예산과 사업량을 대폭 확보한 만큼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사망사업을 집중 추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 산업재해 감소 · 안전문화 선진화 앞장

사고사망재해예방 결의대회 · 안전 보건활동 우수사례 선발대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는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테에서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고사망재해예방 결의대회 및 안전 보건활동 우수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발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전북도 안전보건네트워크 오영민 총회장을 비롯해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전현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송호근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 등 기관대표와 건설 · 제조 · 서비스업

협업체별 대표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내 건설 · 제조 · 서비스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안전 · 보건인의 재해감소와 안전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2021 사고사망재해예방 선포식 및 청렴 결의문 낭독,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선발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고사망재해예방 선포 및 결의문' 낭독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

지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 및 청렴문화 구현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총 12명에게 전북도지사, 고용노동부 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 표창을 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기진작을 고취했다.

아울러,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선발대회를 통해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안전보건 개선을 강조하고, 최종 선정된 2팀에 전북도지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 • 한국스피치, 웬별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전북도는 지난 7월 새롭게 위촉된 '제3기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의 지역별 순회 워크숍을 통해 시·군별 자치회 조직구성과, 지역별 단장 선출로 제3기 지킴이단 운영방안·자치활동전개·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단장 간담회를 21일 실시했다.

제3기 도민 인권지킴이단 지역별 단장 간담회

운영 계획 · 시 · 군 환경 고려한 활동 전개 등 논의

전북도는 지난 7월 새롭게 위촉된 '제3기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의 지역별 순회 워크숍을 통해 시·군별 자치회 조직구성과, 지역별 단장 선출로 제3기 지킴이단 운영방안·자치활동전개·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단장 간담회를 21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도민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계획과 시·군 환경을 고려한 지킴이단 활동 전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존중과 공감의 인권 도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신장의 계기를 마련,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상호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민 인권지킴이단원이

활동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기 위한 '지킴이단 인지도 제고'를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도내 시·군 인권조례제정, 인권정책 조기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인권활동을 펼치고,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지킴이단 제보 활동을 강화·독려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지역별 단장들과 논의했다.

한편,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은 지난 2016년 발족해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생활 속 인권신장 모임으로, 현재 150명의 도민이 제3기 지킴이단으로 소속돼 도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차별사항을 제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인권지킴이단 단장들이 간담회 중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